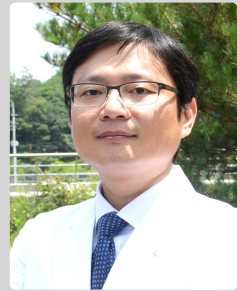


## 한방 현대화 관련 국가예산 현황

한 정 호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소화기내과 교수  
joungho@cbnu.ac.kr



---

〈편집자 주〉 얼마 전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한방난임사업, 한약(탕약) 현대화 사업,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지원 사업 등이 논란이 되었다. 이 기회에 국가적인 예산지원을 받는 여러 한방의 현대화·과학화 사업에 대해서 그 예산규모와 사업종류 등 전체 현황 개요를 파악해보자.

‘한방 현대화’란 명목으로 지원되는 국가 예산 사업에 대해 살펴보고 주의를 환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

## 서론

2017년 12월 국회에서는 2018년 보건복지부의 한방관련 예산을 580억 3,500만 원으로 결정하였다. 이는 전년대비 무려 34.3%, 66억 6,400만 원이나 증가한 예산이다.[1] 각종 복지 예산이 증액되는데 비하여 국민의 혈세가 한방관련 예산에 이렇게 증액 편성될 가치가 있는 것인지는 세부 내역을 살펴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 소관 부처와 국회의원은 답해야할 의무가 있다. 재화가 무한대라면 어느 곳이나 무한대로 배분해도 되지만, 한정된 재화인 국민의 혈세는 엄격히 집행되지 않으면 결국 어딘가 꼭 필요한 곳에 투입되지 않는 것이며, 이는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과 같다.

최근 판문점을 통하여 탈북한 병사의 총상을 치료한 권역외상센터 이국종 교수의 절규를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 예산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증외상 치료분야에 적절히 배분되지 못하여 왔으며, 심지어 아토탄만의 영웅이라 정부 스스로 칭송하던 석해균 선장의 치료비 2억 원을 아직까지 해당 외상센터에 지급하지 않았으면서 한해에 580억을 넘는 혈세가 한방의 현대화란 명분으로 투입될 만큼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해결해야 할 과제 중 우선 순위인 지 본고를 통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 표 1. 2018년 한의약산업육성사업의 11개 세부사업비 ■

한의약산업육성사업	2018년 예산
한약제제 현대화사업	8억 9,600만 원
한약약 소재은행사업	9억 원
한국토종자원의 한약재 기반구축사업	7억 원
한약약침약제 규격표준화사업	3억 원
한·양방 협진 모니터링센터운영지원 사업	3억 5,000만 원
한약(탕약) 현대화	52억 원
한약약 공공인프라 구축	100억 원
연구개발비	2,500만 원
기본운영비	3,100만 원
대구한방의료체험타운 조성	20억 원
한약진흥재단 비정규직 처우개선	9,400만 원
<b>합 계</b>	<b>204억 9,600만 원</b>

## 본론

크게 한방 관련 예산을 분류하면, 한의약산업육성사업, 한약진흥재단 운영지원사업, 한의기반 융합기술개발(R&D), 한약약 세계화추진사업, 한약선도기술개발 사업, WHO전통의약활성화지원사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1. 한의약산업육성사업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으로 총 11개 세부사업으로 만들어져 있다(표1). 한약(탕제)의 현대화에 52억이 투입되는데, 내용은 한약표준조제시설을 건립한다는 것이다. 즉, 제약회사와 같은 시설을 짓는다는 것인데 그럼 제약회사와 같이 탕제의 성분이 명확히 표기가 되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해야하며, 해당 탕약이 어느 질환에 어느 만큼의 효과와 효능이 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기존처럼 몇 천 년 전의 중국 고서인 황제내경(黃帝內經)이나 몇 백 년 전 동의보감(東醫寶鑑)에 나오는 식물이나 동물의 뽕 등을 섞어서 끓이면 현대과학의 검증이 면제되는 한국적 시스템을 유지한 채, 국민의 혈세로 이러한 시설을 건립하여 탕약을 대량생산하는 것이 합당한 결정인지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하지만 어디에도 그러한 고

민의 흔적은 찾을 수 없다.

또한 ‘한의학 공공인프라 구축’에 100억 원을 투여 하겠다는데, 이는 한약 비임상연구시설과 임상시험 용 한약제제 생산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성분이 무엇인지 밝히고, 한의계에서 주장하는 ‘기(氣)’를 통한 치료의 전제조건인 ‘기’와 ‘기’의 운영원리인 ‘음양오행(陰陽五行)’을 입증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내용은 볼 수 없다. 근본적인 원리와 효과에 대한 검증 없이 기존의 한의계의 방식대로 사람에게 직접 시험하는 임상시험을 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 2. 한약진흥재단 운영지원사업

한약진흥재단이 공기업으로 편입되면서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이 국비에서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어 72억 4,500만 원으로 국회를 통과하였다.

## 3. 한의기반 융합기술 개발(R&D)

이 사업은 현대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한의학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것으로 19억 6,700만 원이 편성되었다. 세부 목표는 한의융합제품화 기술개발, 한의융합 다빈도 난치성질환 대응기술개발, 한의융합 스마트케어 기술개발, 한의융합 정밀의료 기술개발의 4항목으로 이루어져있다.

과학중심의학연구원에서 기사화하여 2017년 12월 인터넷에서 유명해진 한의학 논문이 있다(그림 1). [2] 2017년 10월에 출판된 이 논문의 내용은 한의학의 근본원리인 음양오행을 세포 단위에 적용한 가설이다. 한의학에서는 인체의 기관을 오장육부로 분류하는데, 이 중 오장은 간, 심장, 비장, 폐, 신장 다섯 가지 장기에 해당되며, 각각 목, 화, 토, 금, 수의 성질을 가진다고 주장하여왔다. 이 논문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세포내 소기관에 적용하여, 소포체, 골지체, 리소좀, 미토콘드리아, 세포막을 각각 목, 화, 토, 금, 수에 대입하였다. 물론 과거의 5행과 오장육부를 연결한 주장처럼 이 세포내 소기관이 정말 5행에 따르는지 과학적 근거는 없다.

그런데 이 논문이 실린 학술지인 Integrative Medicine Research(IMR, 통합의학연구)는 한국 한의학연구원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로서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이 논문을 작성하여 투고한 연구팀 또한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연구팀으로 이곳 또한 국민의 혈세가 투여되는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의 산하 공공기관이다. [3] 만일 이슬람국가에서 ‘알라의 전능함으로 세포내 소기관은 어느 어느 천사가 각각 주관하고 있다.’는 연구논문을 국가연구기관 연구팀이 투고하여 국비 지원 학술지에 실리면, 대한민국의 뉴스보다는 ‘세상의 이런 일’이나 ‘해외 토픽’ 같은 곳에 그 나라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소개가 되지 않을까?

## 4. 한의학 세계화추진사업

이 사업의 목적은 한의학 산업육성과 세계전통의약시장 선점을 위한 정책기반을 마련하고, 지식자원 체계화와 해외기반 구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공고되어있다. 주요 사업 내용은 한의학 해외진출 통합지원, 한의학 교재 개발, 국내·외 한의학 상호 교류 확대, 한의학 세계화 추진단 운영과 한의학 정책 및 통계 연구이며, 2018년도 예산만 35억 원에 이른다.

그런데 국제적으로 한의학 즉, Korean Traditional Medicine이 표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김치가 세계 최초의 김치이고 한국의 보편적인 먹거리이며, 이를 일본이 나중에 배워가서 ‘기무치’가 된 것이므로 당연히 김치는 한식, 즉 Korean Traditional Food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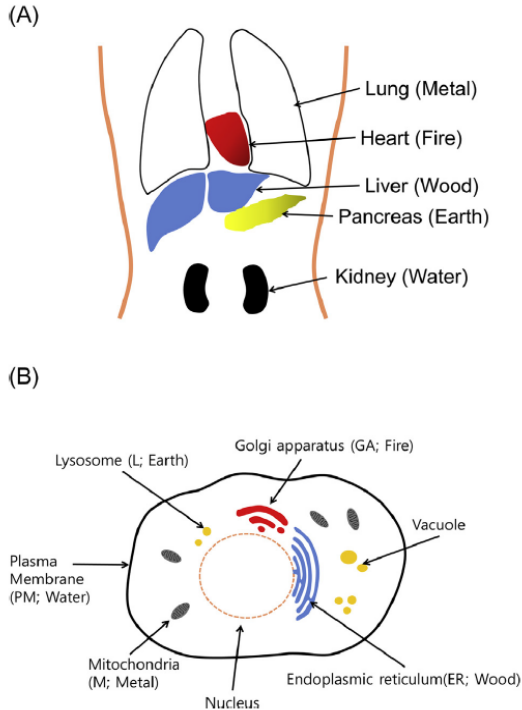


Fig. 1 - Diagram of human organs and cell structure. Major human organs comprising the circulatory system like the lung and heart, digestive system like the liver and pancreas, and urinary system like the kidney (A). Representative cellular organelles include the nucleus, endoplasmic reticulum (ER), Golgi apparatus (GA), mitochondria (M), lysosome (L), vacuoles, and plasma membrane (PM) surrounding the cytosol of cells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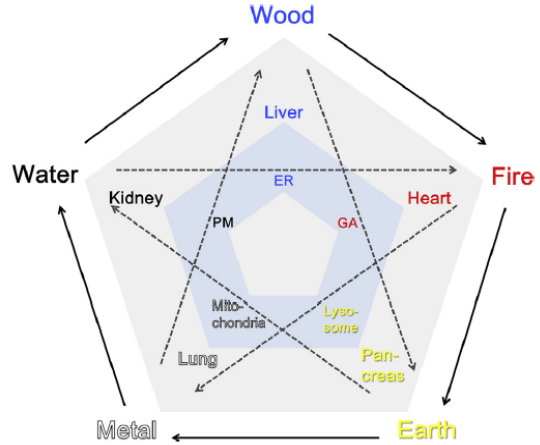


Fig. 2 - Diagram of linkage between cellular organelles extending to organs and five elements. The clockwise rotation of five elements is order, circulates from the wood-to-water-type. The human organs, which are connected to the five elements, also rotates along with them. The innermost pentagon indicates cellular organelles as microcosms of the five elements. Arrow-lines present mutual nourishment cycle, arrow-dashed lines indicate mutual restrain cycle. Pc indicates pancreas.

1.5. Relationships of cellular organelles in the theory of five elements

As introduced above, there can be cycles of mutual nourishment and mutual restrain. The mutual nourishment cycle is the so-called win-win relationship that forms a circulation in the order of the ER, GA, lysosome, mitochondria, and PM (shown in Fig. 2). The mutual restrain cycle, however, is a bal-

그림 1. 세포내 소기관이 음양오행으로 연결되었다는 한국한의학연구원 연구팀의 논문[2]

대한민국에서 한의학이라 불리는 전통의학은 중국 고대 중의학을 계승시킨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한(韓)인 한의학(韓醫學)으로 바꾸어 사용한 것이 불과 30년 전인 1986년이란 것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즉, 한국의 한의사협회와 한의사는 1986년까지 중국의 한나라 한(漢)을 사용해왔으며, 1986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중국과 차이를 두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한(韓)으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4]

1959년부터 1991년까지 각종 한국어 사전에도 한방의 정의는 ‘중국으로부터 전래해 온 의술’로 되

어있던 것을 1996년부터 한방의 사전적 정의를 ‘중국으로부터 전래돼 우리나라에서 발달한 고유의 의술’로 바꾸었다고 하여, 중국을 사대한 조선의 의학이 중의학이 아니라 우리 민족 고유의 한의학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통용될 것이란 생각은 너무 주관적이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싶다. 중세시대 동안 중국으로부터 절대적 영향을 받은 주변의 베트남, 조선, 일본은 모두 ‘음양오행과 기’에 기반한 고대 중의학을 받아들여 당대에 각국의 주류 의학으로 신봉하였다. 이는 강대국이고 문화와 과학



적으로 앞선 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던 당연한 역사일 뿐이다. 부끄러울 것도 아니며, 숨길 것도 아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중의학과 다른 베트남전통의학이고, 일본전통의학이라며 국가 예산을 들여 국제적 홍보를 하고 표준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필자는 이해하기 어렵다. 역사와 문화는 인문학의 분야이지만, 의학은 과학에 종속되는 학문의 갈래이다. 어느 민족이나 지역에서 오래된 주장이 있었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현재의 과학으로 증명된 사실만이 존재하고, 이를 활용하여 인간의 치료에 적용하는 것만이 윤리적으로 허용되는 최선의 의학, 현대의학이다.

### 5. WHO전통의약활성화 지원사업

이는 위의 3번 사업과 비슷한 목적으로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WHO/WPRO)에 한의학의 세계화와 전통의약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인 기술관을 파견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연간 6억 가량이 2012년부터 배정되어 왔다.

### 6. 양-한방 융합기반 기술 개발(R&D)사업

2017년 61억 가량, 2018년에는 47억 가량이 투여되는 사업으로 4대 중증질환 및 만성/난치성 질환 등을 현대의학과 융합연구하여 신약을 개발하고, 새로운 예방·진단·치료기술을 개발한다는 목적으로 투여되는 예산이다.

### 결론

한국한의학연구원과 대한한의사협회가 공동 발간한 ‘2012년 한국한의학연감’에 따르면 정부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한의학 분야 연구에 2,992억 원을 투자해왔다. 2004년 기준으로 한국한의학연구원에만 연간 500억 원의 예산을 국비에서 지원해왔다. 이제까지 보건복지부의 예산만이 아니라, 조사하기도 어려운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에서도 투자를 받아왔다. 그럼 어떠한 연구의 결과가 나왔을지 국민은 알아야하고, 국회의원은 이를 평가하고 계속 투자를 해야 할 지 철저히 검증해야할 의무가 있다.

표 2. 1994년부터 2013년까지 한방의 사상체질 관련 특허출원 내용 (특허청, 2014년)

기술 분야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출원인
금/은 가락지	사상체질 판별장치	*****	개인
식품 접촉	인체의 체질 진단기	*****	개인
음성 성문	음성분석을 통한 사상체질 구분 방법	*****	연구소
	성문파형을 이용한 사상체질 진단 방법	*****	대학교
3차원 영상	사상 체질 구분을 위한 3차원 영상 비교 방법	*****	연구소
자기장	자기장을 이용하여 인체의 사상체질을 감별하기 위한 방법	*****	개인
뇌파	뇌파 분석을 통한 사상체질 구분방법	*****	연구소
경락에너지	경락 에너지 신호를 이용한 사상체질 분류방법	*****	대학교
한약재 반응	숙지황 또는 지모를 이용한 소양인 진단방법	*****	연구소
	씨디엔에이칩을 이용한 사상체질의 진단	*****	중소기업
cDNA칩	사상체질 진단용 다중 SNP 마커, 그를 포함하는 마이크로어레이 및 그를 이용한 사상체질 진단용 키트	*****	연구소
SNP마커			

2014년 특허청은 1994년부터 2013년까지 ‘사상의학’ 관련 출원된 특허 80건을 조사하여 보고하였다.

특허청은 ‘사상 체질, 이제는 과학적으로 판별한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하여, 대학교와 한의학연구원 등의 출원 증가가 두드러지고, 이는 2000년대 초반의 대학별 산학협력단 출범과 한방연구의 과학화 경향의 결과로 해석된다고 분석하였다. 그 발명의 내용은 표2와 같다.[5] 금/은가락지로 식품에 접촉하여 사상체질을 판별하는 기계와 뇌파, 경락에너지, 음성으로 사상체질을 구분하고 진단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필자는 이러한 연구와 특허출원에 우리의 혈세가 사용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 국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회의원과 소관 부처 공직자들의 윤리의식에도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내년(2018년) 보건복지부의 한방관련 예산은 약 580억 원으로 결정되었으며, 미래부와 각 지자체 등에서 한방관련 예산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지는 확인할 방법도 현재로서는 없다. 내년에라도 과거 수십 년간 한방관련 예산에 투여된 혈세가 어떤 결과를 생산하였는지 언론과 국회는 밝히기를 부탁드리며, 특히 2018년에 투여되는 혈세의 결과를 우리 국민에게 알려주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1. ‘내년도 한의약 예산 580억 원, 2017년 대비 34% 증가’, 김춘호 기자, 민족의학신문 2017.12.6.
2. Chung S, Cha S, Lee S-Y, Park J-H, Lee S. The five elements of the cell. Integrative Medicine Research. 2017 Dec 1;6(4):452-6.
3. 골지체는 불의 성질? 2017 최신 한의세포학 동향, 과학중심의학연구원.  
(링크:<https://blog.naver.com/i-sbm/221164747072>)
4. 한방 표기 漢→韓 바뀐 이유는? 최미라 기자, 헬스포커스뉴스 2015.10.1.
5. 사상 체질, 이제는 과학적으로 판별한다. 특허청 2014.7.8.